

구약논단

제 15권 3호(통권 33집) 2009년 9월 30일

하 경택(서울장신대) 시편 82편의 해석과 적용 49

본 논문에서는 시 82편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었던 시편이 오늘날의 독자/청중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특별히 시 82편의 '신들'(엘로힘)에 대한 해석은 종교사적, 예언자적 및 랍비적 해석 전통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구약성서 신학을 확인하게 된다.

Ha, Kyung-Taek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s 82 49

시편 82편의 해석과 적용: 하나님이여, 이 땅을 심판하소서

하 경택 | 서울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성서 해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양극단의 상황에서 나타난다. 한편으론 본문의 일차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역사적 상황을 무시한 해석에서 발생하며, 다른 한편으론 본문의 역사적인 의미만을 강조하여 오늘날의 독자 또는 청중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도외시하는 해석에서 나타난다. 전자는 알레고리 해석이나 소위 본문의 영적 의미만을 탐구하는 해석 방법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후자는 본문의 과거적 의미에 집중하는 역사 비평적인 해석 방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점이다. 시편 82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이다. 특히 본문에 나타나는 '신들의 모임'이나 '신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 입장에 따라 본문의 의미와 적용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시편 82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었던 시가 오늘날의 독자 또는 청중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문 사역

1절 아삽의 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לֵאלֹהִים) 중에 서 계시며,
신들(אֱלֹהִים)가운데서 재판하신다.

- 2절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평하게 재판하며,
악인들의 낯을 들어줄 것인가?
3절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공평하게 하며,
연약한 자와 곤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하고,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라.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흑암 중에 헤매고 있으며,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
6절 내가 말한다:
“너희는 신들(אֱלֹהִים)이다.
너희 모두는 지존자의 아들들(בְּנוֹתַי וְבָנָי)이다.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우두머리의 하나처럼 넘어질 것이다.”
8절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참으로 모든 나라들이 당신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3. 본문의 구조

I. 서론(배경)

1절: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재판하심

II. 본론(판결 내용)

2-4절: 신들에 대한 명령

5절: 신들의 그릇된 활동의 결과

6-7절: 신들에 대한 심판 선고

III. 결론(기원)

8절: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

본문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다.¹⁾ 시편 82편 1절은 이 시의 배경을

1) 참조. J. L. Mays, 「시편」 (현대성서주석: Interpretation), 신 정균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56쪽. 5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 설명을 보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 2-7절은 하나님의 판결 내용으로서, 이 시의 중심부를 형성한다. 하나님은 재판장의 권위를 가지고 질문과 권면으로 여러 신들에게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2-4절), 그 결과로 생겨난 이 땅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책임을 묻고(5절), 직위 해제와 더불어 죽음과 종말의 심판을 선고한다(6-7절). 마지막 절(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나타난다.

3. 시의 양식

이 시의 양식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 이 시는 어느 특정한 양식으로 분류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궁켈(H. Gunkel)은 시편 82편의 서술 양식을 “예언자적 발언 방식의 모방”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언 시로 보았다(그에 의하면 시편 50편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²⁾ 모빙켈(S. Mowinckel)은 “신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짧은 기도에 어울리는 시와 신약의 특별한 혼합”으로 구성된 시라고 생각한다.³⁾ 뷔르트와인(E. Würthwein)은 예언자적 심판 발언이 본래 제의 영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옹호하며, 시편 82편의 발언들은 제의 예언자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⁴⁾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이 시를 제의적-예언자적 탄식 제의들과 매우 유사하며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반대하는 제의 예언자들의 심판 연설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로 여긴다.⁵⁾ 한편 메이즈(J. L. Mays)는 이 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은 법정 소송 절차를 반영한다고 말한다.⁶⁾ 이러한 법률 절차 형식을 따른 발언들은 이스라엘과

2) 참조. M. E. Tate, 「시편 51-100」 (WBC), 손 석태 역(서울: 솔로몬, 2001), 549쪽.

3) 참조. S.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II*, (Oxford: Basil Blackwell, 1962), 64쪽.

4)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569-570쪽.

5) 참조. J. Jeremias, *Kult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120-125쪽(M. E. Tate, 「시편 51-100」, 549쪽에서 재인용).

6) 참조. J. L. Mays, 「시편」, 356쪽.

그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사 3: 13-15, 참조, 사 1: 18-20, 미 6: 1-5, 호 4: 1-3).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분께 이 땅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으로 끝을 맺는다(8절).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야훼-제왕 시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시에서 선포되고 있는 “신들의 무력화”는 왕이시며, 최고의 신이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신 야훼 앞에 드리는 제의적인 경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참조 시 95: 6, 100: 4).⁷⁾ 따라서 시편 82편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예언적 특성을 가진 예언 시로 분류될 수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야훼가 온 땅의 재판장이시면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야훼-제왕 시로 분류된다.

4. 본문의 삶의 자리

이 시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 낭송자는 성소에서 활동하던 제의 예언자를 생각할 수 있다. 크라우스(H.-J. Kraus)는 단순히 제의 예언자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에 능숙하고 그의 ‘모임’에 접근할 수 있었던”(참조, 민 12: 6 이하, 왕상 22: 19 이하, 사 6: 1 이하, 렘 23: 18, 시 50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예언적 중재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⁸⁾ 이러한 환상적이고 예언적인 발언은 어디에서 행해졌을까? 모빙켈(S. Mowinckel)과 슈미트(H. Schmidt)는 시편 82편이 “야훼의 대관식 축제”(Thronbesteigungsfest Jahwes)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제의에서 “야훼의 대관식 축제”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⁹⁾ 다양한 요소들이 병합되어 있는 이 시에서 어느 특정한 제의적 상황만을 고려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탈무드의 규정에 의하면 시편 82편은 매 주일 셋째 날 낭송되는 시였다.¹⁰⁾ 따라서 이 시는 예배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

7)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0쪽.

8) H.-J. Kraus, *Psalmen 64-150*, 570쪽. 크라우스는 이러한 ‘예언적 중재자’의 원형은 모세(신 18: 15이하; 민 12: 6이하)라고 말한다.

9) ‘야훼 대관식 축제’가 이스라엘 제의에서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참조, H.-J. Kraus, 「시편의 신학」, 신 윤수 옮김(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4), 209-211쪽. 또한 시편의 연구사에 관하여 참조, 유 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 (한국구약학회, 2009), 30-62쪽.

다. 이 시가 읽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이 거듭 들려졌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이 예전의 바탕을 제공하였다.¹¹⁾ 본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판결 내용은 8절의 간구로 이어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를 간구한다. 결국 이 시는 본문 안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처럼 불성실하고 부적격한 신들을 폐하고 이 땅의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이 땅을 판단하고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본문 해설

1) 배경: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재판하심(1절)

1절은 아삽의 시에 대한 표제어 다음에 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시작된다. 한 절에 신에 관한 명칭이 세 번 사용되었다(엘로힘, 엘, 엘로힘). 각각 ‘하나님, 신들의 모임, 신들’이라고 다르게 번역되었다. 이것은 고의적인 어휘 선택이 아닌가 추측된다.¹²⁾ ‘엘’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하늘의 권위를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것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³⁾

모임이나 회중의 의미를 갖는 에다(עדה)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이스라엘(자손)의 회중(עדת בני-ישׂאל) 구약성서에서 39회 사용됨)이나 야훼의 회중(עדת יׁ 27: 17, 31: 16, 수 22: 16f.)의 구문 형태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신들의 모임(עדת-אל)이라는 형태로는 이곳에서 단 한 번 사용된다. 이 신들의 모임은 수메르, 아카드, 우가리트 등의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신들의 회의’ 개념과 유사하다.¹⁴⁾ 이

10) 미쉬나 소책자인 타미드(Tamid) 7: 4에 의하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성전 예배의 일부이었다. 이 예배는 희생 제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시편들이 매주일, 그리고 매일 읽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92편, 일요일에는 24편, 월요일에는 48편, 화요일에는 82편, 수요일에는 94편, 목요일에는 81편, 금요일에는 93편(헬라이어 번역판)을 읽었다. 참조. K. Seybold, 「시편개론」, 이 군호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9쪽.

11) 참조. J. L. Mays, 「시편」, 356-367쪽.

12) 참조. L. K. Handy, “Sounds, Words and Meanings in Psalm 82”, *JSOT* 47 (1990), 53쪽.

13) 참조. K. M. Craig, “Psalm 82”, *Jr Source: Interpretation* 49 JI (1995), 282쪽.

14) 참조. K. M. Craig, “Psalm 82”, 281쪽. 여기에 이집트의 ‘세드-축제’(sed-Fest)가 추가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참조. H. Kees, *Der Gotterglaube im alten Agypten*, 1941, 214쪽). 시편 82편에 반영된 고대중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하여 참조. 기 민석, “시 82편: 우가리트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32 (한국구약학회, 2009), 111-131쪽.

러한 ‘신들의 회의’에 대한 사고는 구약성서에서 쉽게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는 신적인 존재들이 단지 하나님께 수종하는 천상의 존재로서 나타난다(왕상 22: 19ff, 사 6: 3, 욥 1장, 2장, 시 103: 19ff).¹⁵⁾

야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서 재판장으로 등장하신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엘’이나 ‘엘리온’이 신들의 모임의 의장 역할을 담당한다.¹⁶⁾ 시편 82편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러한 ‘엘’의 기능을 한다. 시리아-가나안의 신화에는 하늘의 세계가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엘로힘(אלהים) 시 8: 6), 엘림(אלים) 시 58: 1 고쳐읽기를 따라), 베네 하엘로힘(בני האלהים) 욥 1: 6 이하), 베네 엘림(בני אלים) 시 29: 1), 케도شم(קדושים) 시 89: 6, 8, 출 15: 11, LXX 욥 5: 1, 15: 15), 또는 집단 개념 콜-찌바 하차마임(קול ציבא חצמא) 등이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이스라엘 이전의 신화에서는 하늘의 왕이나 지존의 하나님으로 만신전의 최고 통치자를 표현했던 반면, 구약성서의 시에서는 야훼가 신들 세계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말한다(출 15: 11, 시 86: 8, 97: 7 이하, 103: 19 이하, 135: 5).¹⁷⁾ 야훼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다(시 95: 3, 96: 4).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서 지존의 재판장으로 나타나신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진술이다.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은 통상 앉아서 진행된다(참조. 출 18: 13, 사 4: 5, 왕상 7: 7, 사 16: 5, 28: 6, 시 122: 5, 잠 20: 8).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중요한 재판이 일어날 때 서 계시는 분으로서 묘사된다(사 3: 13, 시 76: 10, 참조. 행 7: 54-55, 계 5: 6, 14: 1, 19: 17). 드보(R. de Vaux)는 사건의 논쟁 중에는 재판장이 앉아 있으나, 판결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며, 논쟁 당사자들은 시종일관 서 있다고 주장한다.¹⁸⁾ 하나님이 서시는 장면은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대하게 만든다.¹⁹⁾ 체밧(M. Tsevat)은 이 장면이

15)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1쪽. ‘천상의 회의’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여기에서 사용된 에다(עדה)라는 개념 외에 무엇보다도 소드(סוד)라는 개념이 사용된다(욥 15: 8 렬 23: 18; 시 89: 8).

16) 참조. O. Eißfeldt, *EL im uralten Pantheon* (Berlin: Akademie Verlag, 1951) (H.-J. Kraus, *Psalmen 64-150*, 571쪽에서 재인용).

17)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1쪽.

18) 참조. R.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1), 156쪽.

19) 참조. K. M. Craig, “Psalm 82”, 281쪽.

본래는 “신들이 보고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정례적인 모임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갑작스레 재판장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모인 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서신 것이다”²⁰⁾라고 설명한다. 이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서 일어서신 후 신들의 행동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2) 판결 내용(2-7절)

(1) 신들에 대한 명령(2-4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질문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מתי-עד 아드 마타이). 신들을 향하여 하신 이 질문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참조 출 10: 3, 7, 삼상 1: 14, 왕상 18: 21, 렘 4: 14, 시 74: 10 등, 참조 16: 28, 민 14: 11, 27).²¹⁾ 인내의 기다림 후에 지존의 하나님은 등장하신다. 여기에는 신들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고대 세계에서 모든 재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재판의 하나님의 것이다(מִשְׁפָּט לַאלוהים 미쉬파트 렐로힘 신 1: 17).²²⁾ 하나님이 신들에게 묻는 책임의 내용은 우상 숭배나 다른 신들의 존재 문제가 아니다. 공평한 재판과 정의의 실현 문제이다. 그들이 의롭지 않게 재판관의 직능을 수행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악인들의 ‘낮을 들어올린다.’ 이것은 악인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엄중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신 1: 17, 16: 19, 레 19: 15).

3-4절의 경고의 말은 정의로운 재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3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네 번 반복하여 언급한다: לַ(달)-יוֹם(야툼)-עַ(아니)-שָׁ(라쉬). 4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두 번 반복된다: לַ(달)-אֲבוֹן(에브온). 반복은 강조의 효과를 주기 위한 시적 장치다.²³⁾ 이러한 낱말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총체적

20) M. Tsevat, “God and the Gods in Assembly,” *HUCA* 40 (1969), 127쪽.

21) 액커만(J. S. Ackerman)은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행동에 대한 고발과 ‘그치라/중단하라!’는 명령형의 효과를 가진 중지의 요구라고 말한다. 하지만 테이트(M. E. Tate)는 질문 뒤에 명령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를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참조, 출 10: 3 삼상 1: 14; 16: 1; 왕상 18: 21; 렘 23: 26, 28). 참조. M. E. Tate, 「시편 51-100」, 554쪽.

22)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2쪽.

23) 참조. M. Tsevat, “God and the Gods in Assembly,” 128쪽.

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편에서 '가난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곧 '권리 없는 자'로서, 어떤 영향력이나 신분적 배경이 없어 무제한의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²⁴⁾ 이들은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을 대표하고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이 재판관들의 본연의 임무이다.

3절과 4절에서 모두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을 가운데 두고, 두 개의 동사가 각각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다. 그들이 행해야 바가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3절에서는 '공평하게 하라'(יָדִין שִׁפְטוּ)와 '공의를 베풀라'(קִיּוּן הַצְדִּיקָה 하쓰다이쿠)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4절에서는 '구하라'(יִטְּףּ 팔투)와 '건져내라'(יִצִּיֵּץ 하찌루)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동사의 배치는 3절에서 '쉬프투'와 '하츠다이쿠', 4절에서 '팔레투'와 '하츨루'가 어울려 뚜렷한 각운을 나타낸다. 신들의 임무는 인간 사회에서 물질과 권력이 없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판결을 제공하는 것이었다.²⁵⁾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초 규정을 연상시킨다(참조 출 22: 21, 23: 6, 신 10: 8, 24: 17, 27: 19).²⁶⁾ 이렇게 신들(엘로힘)은 정의와 도움을 실행하는 야훼의 종이 되어야 했고, 그의 구원 의지를 현실화해야 했다.²⁷⁾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들어야 했다. 심판이 선고되기 전에 그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가 서술된다.

(2) 신들의 그릇된 활동의 결과(5절)

5절의 화자와 내용은 불분명하다. 많은 주석가들이 5절의 내용을 신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²⁸⁾ 그럴 경우 시의 흐름이 끊어

24) 참조. H.-J. Kraus, 「시편의 신학」, 366쪽. 더 나아가 시편의 '가난한 자들'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362-372쪽을 참조하라.

25) 참조. M. E. Tate, 「시편 51-100」, 554쪽.

26)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2쪽. 그렇지만 법률 제정자와 재판장에게 힘없는 자들에 대한 도움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구약성서의 윤리만이 아니라 고대 오리엔트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바이었다.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들 그진정한 통치자의 권위는 정의의 보호와 실현에 있다고 생각했다. 참조. J. L. Mays, 「시편」, 358쪽.

27)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2쪽.

28) 바어저(ATD), 크라우스(BK), 테이트(WBC), 쟁어(HThKAT) 등의 주석을 참조하라.

진다. 하나님이 신들에 대해서 2인칭으로 말하던 것을 갑자기 3인칭으로 바꾸어 말하는 형국이 된다거나, 다른 화자가 끼어 들어 신들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²⁹⁾ 그러나 5절의 내용을 하나님의 계속되는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시의 맥락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접근일 것이다. 존슨(A. R. Johnson)은 5절의 내용을 3-4절에서 말한 압제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키드너(D. Kidner)도 이 구절을 “폭정을 당하고 속임을 당한 자들의 곤경”에 대한 서술로 보았다.³⁰⁾

신들에 의해 의로운 재판이 시행되지 못한 결과로, 그들, 곧 ‘가난한 자들’은 무엇이 의롭고 불의한지 구별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된다(5a).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5b). 정의의 빛이나 공의의 태양이 비취지 않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5b). 의로운 재판은 창조 전체의 기초이며, 세계의 본래적인 근거다(참조 시 96: 10). 공의가 서지 않으면 세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시 11: 3)³²⁾ 이로써 “야훼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태, 즉 극도로 위태롭게 된 상황이 예고된다.”³³⁾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와 생명의 집으로서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가만히 계실 수 없다. 이제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신들에게 심판이 선고된다.

(3) 신들에 대한 심판 선고(6-7절)

6-7절은 1절과 함께 구약성서에서 가장 큰 물의를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이다. 모든 신들의 죽음을 선고하고, 그러한 신들에 기반하고 있는 통치 체계들의 무력화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6절의 אֱלֹהֵי אֲדָמָה

29) 쟁어(E. Zenger)는 8절의 화자와 5절의 화자가 같은 것으로 보고, 5절을 신들의 행동에 대한 탄식이라고 해석한다.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Herder, 2000), 481-482, 488쪽.

30) 참조. Marvin E. Tate, 「시편 51-100」, 555쪽.

31)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488쪽.

32) 슈미트(H. H. Schmid)는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땅의 기초가 흔들리며... 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된다”고 설명한다. 참조. H. H. Schmid, *Gerechtigkeit als Weltordnung* (Tübingen: Mohr, 1968), 81-82쪽.

33) J. Jeremias, “Die Erde »wankt«,” in: Rainer Kessler (Hrsg.), “Ihr Völker alle, klatscht in die Hände!” *Festschrift für Erhard S. Gerstenberger zum 65. Geburtstag* (Münster: Lit Verlag, 1997), 173쪽.

34)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488쪽.

(아니 아마르티/나는 말하였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궁켈은 ‘아켄’과 함께 쓰인 이 표현이 잘못된 생각을 사실들을 통해 반박하거나 바로잡을 때 사용되었다고 말한다(참조 사 49: 4, 렘 3: 19f, 습 3: 7, 읍 37: 7f, 시 31: 23, 66: 18f).³⁵⁾ 따라서 6-7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내가 이전에 생각하기를, 너희가 신들이고 또한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너희의 높은 지위를 존귀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너희는 제멋대로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황폐화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너희는 육체와 피를 가진 사람처럼, 우두머리 중 하나처럼 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표현을 동시적 완료의 용법으로 이해하고, 뒤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발언 전체를 이끄는 도입부라고 해석한다(*Spruch ex cathedra*).³⁶⁾

신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엘로힘’으로서의 특성을 빼앗기게 된다.³⁷⁾ 그들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되는 인간의 운명을 갖게 된다. 이러한 판결은 단호하다. 신들은 생명의 천상의 영역에서 죽음의 세계로 추락된다. 그들은 질병과 사망의 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고양된 지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어떤 왕의 불충한 고위 관료가 궁정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처럼, 이 실력자들은 축출된다.³⁸⁾ 그들이 엎드러지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³⁹⁾

(4) 기원: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8절)

8절은 제의 공동체의 기도다. 1-7절이 천상 세계의 깊은 곳까지 들어

35) 참조.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362쪽.

36)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488쪽.

37)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3쪽.

38) 이렇게 한 왕이 죽음의 세계로 추방되는 모티브는 구약성서에서 두로 왕의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겔 28장). 신들의 정원에 살던 ‘신적인 왕’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쫓겨난다. 천상의 세계에서 그는 추락된다(겔 28: 17). 사 14장에도 비슷한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 스스로 신들의 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바벨론 왕이 이젠 죽은 자가 되어 구더기와 벌레들과 더불어 지내고 있는 스올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4-21절). 이 외에도 단 8장 9-11절과 11장 21-45절을 생각할 수 있다. 참조 J. Morgenstern, “The Mythological Background of Psalm 82”, *HUCA* 14 (1939) 76-114쪽; J. S. Ackerman, *An Exegetical Study of Psalm 82*, Ph.D. diss. Harvard University, 402-423쪽.

39) 참조. Marvin E. Tate, 「시편 51-100」, 558쪽: 고대 사상의 개념적 영역에서 신들에 의한 불멸성의 상실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M. Tsevat, “God and the Gods in Assembly,” 129-30쪽).

다보고 신들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환상적이며 예언자적인 폭로였다면, 8절은 이러한 폭로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⁴⁰⁾ 제의에 참석한 공동체는 마지막 청원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심판을 간구한다. 이 청원은 신명기 32장 8-9절에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서 소유한다. 그는 유일한 세계의 왕이며 심판자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령형은 역사의 진행 상황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촉구하는 말이었다(참조 민 10: 35, 시 3: 8/7, 7: 7/6, 9: 20/19, 10: 12, 17: 13, 44: 27/26, 74: 22).

이 청원의 파괴력은 이 시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아삽 시의 맥락(시 73-83편)에서 고찰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⁴¹⁾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정치적 재난(주전 722년과 587/6년)을 통해 제국의 종교들과 만난다. 한 나라의 정치적 운명과 그 나라 종교의 신적 위상은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다. 성전 파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거주할 곳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시편 79편 10절에서 보여 주듯이, 이방인들은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조롱 어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82편의 화자와 청중은 현실 인식에 대한 교정을 시도한다. “패배한 신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⁴²⁾ 그분은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으로서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의 지위와 자격을 박탈하신다.

6. 해석과 적용

시편 82편의 해석과 적용은 1절에 나오는 신(들)의 모임(עֲדַת־אֱלֹהִים)과 신들(אֱלֹהִי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신들’에 관한 해석의 입장들은 다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참 신은 누구인가?

이 시를 종교사적인 배경에서 해석하면, 신(들)의 모임(עֲדַת־אֱלֹהִים)이라

40) 참조. H.-J. Kraus, *Psalmen 64-150*, 573쪽.

41)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490쪽.

42) E. Zenger, *Psalmen 51-100*, 490쪽.

는 표현은 고대 중동에서 일반적인 종교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만신전'(pantheon)의 사상 체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엘(EI)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이 용어의 가나안 기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가나안의 만신전에서는 후에는 바알이 그 지위를 이어받기는 하지만, 엘(EI)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다수의 신들로 구성된 신들의 공회를 이끌어 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절의 신들(אֱלֹהִים) 가운데서나 6절의 '너희는 신들(אֱלֹהִים)이다'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것은 신들의 회의 참석한 신들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는 이 회의를 주재하며 신들을 판단하는 심판자이다.⁴³⁾ 7절에서 신들이 אֱלֹהִים(쿠아담/사람처럼) 죽을 것이라 것은 판결은 신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심판 선언인 셈이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시편 82편은 참 신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참 신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돌보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과 종교 체계는 가차없이 신적 지위를 박탈당한다. 또한 시편 82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어떤 분이신 지를 알게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신이다. 신명기 32장 8-9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에 땅을 없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흠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⁴⁴⁾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다'(참조 신 4: 19-20, 단 10: 13, 20-21, 12: 1, 계 12: 7-9). 야훼께서는 모든 민족에 대한 궁극적인 주

43) 여기에서 다신론과 일신론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는 군주적 일신론(der monarchische Monotheismus)의 흔적을 본다. 군주적 일신론은 다음과 같은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1) 어떤 신이 보좌에 오르는 과정으로서의 투쟁과 승리의 국면(즉위 국면, 예> 에누마 엘리쉬에서 마르дук이 최고 신으로 즉위); 2) 특정한 계층 질서의 수립과 선포 국면(계층질서 국면, 예> 우가릿 만신전의 엘); 3) 만신전의 여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초래된 '군주신론'의 범용-이것이 구약성서 특히 시편에 나타나는 양상이다(세력박탈 국면).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 주변국가들의 외래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한다. '군주적 일신론'과 그 신학은 여타 모든 세력들이나 신들이 그들의 힘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수용되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들'은 왕이신 야훼를 섬기는 영적 존재로 바뀌거나(시 103: 19-22) 그들의 존재가 헛된 위상으로서 완전히 부인되기도 한다(시 96: 5). 시편에서 야훼가 열방과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점은 '엘리온'이나 '멜렉'이란 용어의 차용에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야훼를 '심판자'(שֹׁפֵט)로서 부르는 호칭에서 잘 드러난다(시 7: 9[8]; 9: 8, 19: 58; 11[12]; 82: 8; 94: 2; 96: 10, 13; 98: 9). 참조, H.-J. Kraus, 「시편의 신학」, 52-53, 64-67쪽.

44) 70인경(ἀγγέλων Θεού)과 사해사본(אֱלֹהִים אֱלִים אֱלִים)을 따라.

도권을 유지하시면서 열방을 정의로 인도하기 위해 신들을 배치하셨다(8절).⁴⁵⁾ 그 신들은 지존자의 아들들(**יְיָ אֱלֹהֵינוּ** 버네 엘리온)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7절). 그러나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목적인 부합되지 않을 때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어야 한다.⁴⁶⁾ 신들의 존재 여부는 전적으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한 달려 있다.⁴⁷⁾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82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는 ‘이 땅을 심판하소서’(8절)라고 기도할 수 있다.

2) 재판권을 오용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사회 비판

두 번째 입장은 시편 82편의 주된 초점이 재판권을 오용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사회 비판에 있다는 해석이다. 2-4절에 서술된 하나님의 발언은 예언자들의 사회 비판에 나타나는 비난과 고발의 형태로 제시된다(예컨대 사 1: 18-20, 3: 13-15, 미 6: 1-5, 호 4: 1-3). 따라서 하나님의 판결 내용(2-7절)은 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신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재판관이나 고위 관리들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근거는 관리들의 재판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참조 출 23: 1-9, 신 16: 18-20). 이러한 해석의 대표자는 다이슬러(A. Deissler)이다.⁴⁸⁾ 그는 시편 82편의 주제와 상황이 이사야 3장 13절 이하와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야훼께서는 재판하시려고 서 계시고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시려고 등장하신다. 그들은 포도원을 삼킨 자들이며,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그들의 얼굴에 멧돌질하였다고 책망하신다. 이어서 그들에게 심판이 선고된다(사 3: 24ff.): 남자들이 쓰러지고(7절의 ‘나팔’ [**נַפְל**] 동사 참조), 시온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위 관리와 재판관들에 대한 예언자들의 고발과 일치한다(예컨대 미 3: 9ff):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요구와 일치한다(예컨대 사 1: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45) 참조. Marvin E. Tate, 「시편 51-100」, 560쪽.

46) 하나님께서 천상세력들에게 책임 추궁하고 심판하시는 본문들을 참조하라: 사 24: 21; 41: 2ff.

47) 참조. J. L. Mays, 「시편」, 357쪽.

48) 참조. A. Deissler, *Psalmen* (Düsseldorf: Patmos-Verlag, 1964), 319f.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들의 모임(אל-תת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야훼의 회중(אל-תת 1절과 6절)이라는 명칭은 시편 58편 2절에서와 같이 재판장을 의미하는 “신화적-시적 명칭”으로 이해된다.⁴⁹⁾

이러한 해석은 ‘엘’과 ‘엘로힘’에 대한 고대 역본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칠십인경은 1절의 아다트 엘(אל-תת)을 ἐν συναγωγῇ Θεῶν(신들의 모임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역본들은 ‘지상의 재판장’이라고 번역한다: 예컨대, 아퀼라역은 이 부분을 ἐν συναγωγῇ ἰσχυρών(엔 쉬 나고게 이스퀴론), 즉 ‘권세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번역한다(페쉬타와 탈굼도 이와 같은 전통에서 있다). 이것은 ‘아다트 엘’을 אל-תת(아다트 엘림)으로 고쳐 읽는 번역으로서, 다신론적인 사고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엘로힘’이 재판장으로 해석되는 곳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출 21: 6, 22: 6-7, 8, 27, 삼상 2: 25).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7(28)절에서는 ‘엘로힘’과 ‘나시’(נשיא)가 평행 어구로 나타난다.⁵¹⁾ 그러므로 시편 82편에 나오는 ‘엘(림)’이나 ‘엘로힘’은 각각 ‘권능 있는 자’와 ‘재판관’으로 해석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와 돌봄을 소홀히 하는 지상 통치자들의 불의를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이 시의 의도로 파악된다.⁵²⁾ 우리는 이 시에서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기원하는 예언자적인 열정과 포로 시대나 포로 시대 이후 이방 민족 혹은 재판장들에 의해 진행되는 불의한 행동들을 지적하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말씀이 입한 자들은 신이다.”

세 번째 입장은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49)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482쪽.

50)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491쪽.

51) 참조. Marvin E. Tate, 「시편 51-100」, 543, 561쪽.

52) 시편 82편에 대한 현재적 적용에 관한 다음 연구들을 참조하라: 김 성수, “시편을 어떻게 설교 할 것인가? 5 -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시 82편),” 「그말씀」 225 (두란노서원, 2008), 78-82쪽; 박 철우, “작은 자에 대한 큰 사랑을/시편 82편,” 「성경연구」 8 (한국성경연구원, 1995), 16-24쪽.

해석이다. 시편 82편은 유대인과 별이는 예수의 논쟁에서 인용된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인용된 예수의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는 예수의 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 한다. 사람으로서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33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34절):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시편이 정경으로서의 구약 성서 전체에 대한 명칭인 '율법'(νόμος)이라고 지칭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ἐγένετο)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하신다. 따라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며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36절). 이러한 예수의 발언에서는 시편 82편 6b절에 대한 관계성도 고찰된다. 또한 출애굽기 4장 21-22절에 근거하여 시내 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수의 대응 방식은 작은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더 큰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게 하는 논증법의 일환이다(*a minore ad maius*).⁵³⁾

이러한 예수의 논증은 시편 82편의 해석에 대한 유대 전통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네이레이(J. H. Neyrey)는 유대 전통에 시편 82편의 신들을 해석하는 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장들이 있음을 소개한다:

- 1) 천사들
- 2) 멜기세덱
- 3) 재판관들
- 4) 시내 산의 이스라엘 백성들.⁵⁴⁾

이 가운데 예수의 해석은 네 번째 입장의 전통 속에 있다. 이 네 번째 해석전통에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이 받았을 때에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보호되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부패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보

53) 참조 E. Zenger, *Psalmen 51-100*, 492쪽.

54) 참조. J. H. Neyrey, "I said: You are God's": Psalm 82:6 and John 10, *JBL* 109 (1989), 647-663쪽.

통 인간들처럼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액커만(J. S. Ackerman)은 자신의 논문에서 시내 산 계시와 요한복음 1장의 프롤로그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한다.⁵⁵⁾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⁵⁶⁾ 요한복음에 반영되어 있는 시편 82편에 대한 해석은 이 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시로 읽을 수 있게 한다. 시편 82편은 이스라엘의 신관의 발전을 보여주는 종교사적인 중요성이나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를 폭로하는 예언자적 영성을 보여주는 시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개인적 윤리나 책임성에 관하여 교훈을 주는 본문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때만 그러한 신적 권능이 유지되고 인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7. 나가는 말

니르(H. Niehr)는 시편 82편의 신들에 대한 해석에서 양자택일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8세기 예언자들은 예외로 할 때 포로 시대 이전 이스라엘에서는 다신론적인 만신전과 야훼에 대한 이해가 지상 세계에 대한 유비 속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유비에는 신들의 행위가 인간들의 행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신들의 행위가 인간 행동에 대한 유비 속에서 고찰되기 때문에 2-4절에서와 같이 신들의 행위들이 전형적인 인간의 행동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⁵⁷⁾ 그러므로 시편 82편의 발언들이 신들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향한 것인가 하면서 서로를 배제하는 해석은 옳바르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구약성서 신학을 확인한다. 그 자체를 인간사로부터 분리 시키려고 노력하는 추상적 신학은 죽음의 판결로 인도된다.⁵⁸⁾ 신들이나

55) 참조. J. S. Ackerman, “The Rabbinic Interpretation of Psalm 82 and the Gospel of John: John 10:34,”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59 no.2 (1966), 186쪽.

56) 하지만 양자의 경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여기에는 지혜는 선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참여하고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함께 할 장소를 찾는다는 율법-지혜(Torah-Sophia)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57) 참조. H. Niehr, “Götter oder Menschen - eine falsche Alternative. Bemerkungen zu Ps 82,” *ZAW* 99 (1987), 96f.

종교적 체계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서 자신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확인 받는다. 또한 통치자들의 재판 행동들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요 척도가 된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각 개인들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위임된 직분과 사명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는 온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심판하소서.’

8. 참고문헌

- 기 민석, “시 82편: 우가랏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32 (한국구약학회, 2009), 111-131쪽.
- 김 성수, “시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5 -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시 82편),” 「그말씀」 225 (두란노서원, 2008), 78-82쪽.
- 박 철우, “작은 자에 대한 큰 사랑을!/시편 82편,” 「성경연구」 8 (한국성경연구원, 1995), 16-24쪽.
- 유 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 (한국구약학회, 2009), 30-62쪽.
- Ackerman, J. S., *An Exegetical Study of Psalm 82*. Ph.D. diss. Harvard University, 1966.
- _____, “The Rabbinic Interpretation of Psalm 82 and the Gospel of John: John 10:34,” *Harvard Theological Review* 59/2 (1966), 186-191쪽.
- De Vaux, R.,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1).
- Eißfeldt, O., *EL im urgaritischen Pantheon*, (Berlin: Akademie Verlag, 1951).
- Gunkel, H.,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Handy, L. K., “Sounds, Words and Meanings in Psalm 82,” *JSOT* 47 (1990), 51-66쪽.
- Jeremias, J., “Die Erde ‘wankt,’” R. Kessler(Hrsg.), *Ihr Völker alle, klatscht in die Hände!* FS für E. S. Gerstenberger zum 65. Geburtstag, (Münster: Lit Verlag, 1997), 166-180쪽.
- Jeremias, J., *Kult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 Kraus, H.-J., 「시편의 신학」 (신 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4).
- Kraus, H.-J., *Psalmen 64-150*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 Mays, J. L., 「시편(현대성서주석: Interpretation)」 (신 정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Morgenstern, J., “The Mythological Background of Psalm 82,” *HUCA* 14 (1939) 76-114쪽.

58) 참조. J. L. Mays, 「시편」, 367쪽.

- Mowinckel, S.,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II*, (Oxford: Basil Blackwell, 1962).
- Neyrey, J. H., "I said: You are God's: Psalm 82: 6 and John 10," *JBL* 109 (1989), 647-663쪽.
- Niehr, H., "Götter oder Menschen - eine falsche Alternative. Bemerkungen zu Ps 82," *ZAW* 99 (1987), 94-98쪽.
- Schmid, H. H., *Gerechtigkeit als Weltordnung*, (Tübingen: Mohr, 1968).
- Seybold, K., 「시편개론」, 이 군호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Tate, M. E., 「시편 51-100」 (WBC), 손 석태 역(서울: 솔로몬, 2001).
- Tsevat, M., "God and the Gods in Assembly", *HUCA* 40 (1969), 123-137쪽.
- Zenger, E.,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Herder, 2000).

검색어

랍비적 해석
 사회 비판
 시편 82편
 시편의 해석과 적용
 예언자적 해석
 종교사적인 이해

투고일: 2009년 7월 19일
 심사일: 2009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1일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salm 82: O God, judge the earth!

Kyung-Taek 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ough the study on Psalm 82, to investigate how the Psalms of Ancient Israel are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modern reader or audience. A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Psalm 82 lets us know that the interpretations of the Psalm are very diverse and controversial. Particularly in the study on Psalm 82 the interpretation about 'gods'(Elohim) is crucia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theme and message of the Psalm. There are three main approaches: understanding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religions, prophetic understanding as a social criticism and rabbinic understanding reflected in the New Testament (Gospel of John).

First of all, the religio-historical approach shows us that Psalm 82 provides the criteria for God. Real God establishes the social justice through helping the poor and weak in the society. When the gods fail in their duties, they are deprived of the status and right as a god. In addition, Psalm 82 lets us know what position Israel's God is holding in the world. He is the supreme God who governs the creation world and all that belongs to it. Secondly, in the prophetic understanding

the statements of God are read as a social criticism of the prophets. This criticism is aimed at the judges or persons in authority who were abusing their power. It is based on laws regulating court procedure. The advocate of this interpretation is A. Deissler. He relates the theme and situation of Psalm 82 to Isa 3: 13ff. The prophetic understanding corresponds to the position of the translations that see Elohim as a judge (e.g. Ex 21: 6; 22: 6-7, 8, 27; 1 Sam 2: 25). Finally the rabbinic understanding leads us to apply the meaning of the Psalm to individuals. This hermeneutical tradition is reflecte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Testament. In chapter 10 of John the Jews are about to stone Jesus for blasphemy, because he claims himself God. In the answer of Jesus (John 10: 34) Elohim are explained as those who have received the word of God. They have divine power, but only when they are faithful to their duty and role their divine power is to be maintained and admitted by God. These approaches are not alternative but complementar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Psalm 82 we can find out that the Old Testament integrates the heavenly and the earthly, and the social and the individual.

Keyword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salms
Prophetic understanding
Psalm 82
Rabbinic understanding
Social criticism
Understanding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religions